요엘 2:28-32 “만민에게 부어질 여호와의 영” 2026.5.24 주일 설교 | 소그룹 공과

[인트로]

오순절과 성령강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보다, 눈앞의 두려움과 애씀에 더 쉽게 설득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 오래된 소식은, 오늘도 다시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미 문이 열렸음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오순절의 현상과 그 의미는 오늘 나에게 어떤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나눔]

아래 설교문 발췌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18.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제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 사건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순절 성령강림때에 여호와의 영을 기름붓듯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화목제사라는 말입니다.

22.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강림절의 의미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자신의 영,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27.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천국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 길로 들어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참으로 이루셨다는 선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애씀을 내려놓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한가지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태도나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령강림절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다시 한번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명명하고 기도나 실제적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